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국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 서 대상

지난 27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19회 전국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에서 정읍시 북면 한업농장 박건중 농가가 제출한 주황배가 대상을 수상했다. 주황배는 10월 중하순이 숙기인 국내육성 배 품종으로, 과피색은 밝은 황갈색을 띠어 외관이 보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달콤함과 새콤함의 조화가 매우 좋은 품종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농가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며 "정읍배의 우수성이 이번 품평회에서 증명됐고 앞으로도 정읍배를 전국 최고 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4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부안에서 지난 25일에 발생한 소 렙피스킨병 확산으로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는 소 사육 농가에 신속한 백신 접종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제34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렙피스킨병 확산 방지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하루속히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백신공급과 접종을 실시하여 더이상 소 렙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렙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용 및 매몰비용 등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 평생교육 비전 · 주요성과 주제발표

부안군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2023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이 지난 27일 부안 바다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간 평생교육 사업 및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역할 및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네스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포럼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라울 발데스 코테라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 부소장, 디디엘 주르당 유네스코 세계 보건교육 의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 전

북권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평생교육 정책포럼, 글로벌 종합토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부안군 평생학습도시 사례'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부안군 평생교육 비전 및 전략 주요성과 등을 공유했다.

부안군은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으로 지역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북사립대학교 공모 선정과 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2023년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를 해외에 알리고 향후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속 발전 가능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부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이학수 정읍시장, 국회 방문...역전지구대 이전 등 필요성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결위원회의 서삼석 위원, 임태영 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면담해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원사업인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15억)을 건의하면서, 정읍역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대와 시민회합·만남의 광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정읍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첨단방사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반려동물 의약품 R&D 고도화사업(200억), 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344억),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사업(180억) 등 지속 가능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북도·지역 국회의원·중앙부처 항우 인사들과의 협치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1년차... 첫 수확 마쳐

정읍시, 2025년 맞춤형 벼 품종 선발 · 등록 계획

정읍시가 지역 맞춤형 벼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과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벼 품종개발(SPP) 사업 1년 차를 맞아 첫 수확을 마쳤다.

지역 맞춤형 벼 품종개발 사업은 품종개발 주체인 농촌진흥청과 수요자인 지자체·농업인·RPC·소비자가 참여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으로 등록해 차별화된 브랜드

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에 본격 참여해 지난 6월 2일 예비품종 전주 677호 등 5개 계통과 안평벼 등 5개 비교품종을 덕천면 도계리에 식재했다.

지난 9월 20일 농촌진흥청 현장평가단의 점검을 거친 후 지난 10월 12일에는 벼를 품종별로 수확하고 이삭수, 알수, 수량, 등숙률 등의 품종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시와 농진청은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미테스트를 통해 미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후 지역 적응시험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신포 조성과 품종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정읍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품종으로 등록하는 등 우수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인지도 있는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종 선정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읍 맞춤형 벼 품종개발과 유통 기여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삼성전자 기업관계자 직접 면담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28일 삼성전자(주) 기업관계자를 만나 부군수실에서 유치업종 변경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 진행상황과 투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세계 초일류 대기업 '삼성전자'는 신원리산업단지 18만㎡에 3000억원 투자해 스마트허브단지를 구축한다.

민선 출범이후 고창군의 기업유치 사례(관광제외)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종합물류센터(CDC) 이전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구축된 물류센터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경우 투자규



모와 건설과정을 따져 볼 때 생산유발효과 3,0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1.4억원, 고용유발 효과 2450명으로 분석(전북연구원)됐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유치업종 변

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원할한 투자 이행을 위해 기업과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산내 매죽1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마무리

정읍시는 구절초지방정원에 방문하는 방문객과 인근 거주민을 위협하는 낙석 피해 예방을 위한 산내 매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지역은 비탈면 높이 50m 이상의 대절로 암반 비탈면으로 오목형의 돌출형 암반 형태로 상부는 80~110°의 역경사를 보이는 위험도가 높은 암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 사면붕괴 피해 발생이 우려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면정비 요청이 있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2021년 국고 절충을 통해 총사업비 38억원(국·도비 25억)을 확보,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사전설계 검토, 제안공표심사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피암터널 60m, 낙석방지막 3261

㎡를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 지난해 말 피암터널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피암터널 외부에는 구절초 출렁다리의 꽃잔지형상의 LED 조명을 설치해 구절초지방정원과 조화되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해빙기 동결융해와 집중호우 시 지반이완으로부터 발생하는 낙석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경사지 발굴과 정비를 통해 낙석 피해 없는 안전 정읍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추가 확대 구축

고창군은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잔류농약 분석장비 추가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고창군이 6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구축한 장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로 빠른 분석시간과 저농도 농약 성분도 검출이 가능한 장비로 높은 신뢰성과 재현성이 특징이다.

이로써 고창군은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분석장비 LC-MS/MS와 GC-MS/MS를 각 두 대씩 보유해 장비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업무중단 없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진행하여 농산물 출하 적기에 성적서가 발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매년 증가되고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전북농업기술원 기준) 1건당 34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농가 경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